

# 디지털시대의 연속간행물 구독취소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rials Cancellation and Alternatives to Subscription in the Electronic Age

신은자(Eun-Ja Shin)\*

### 초 록

연속간행물 구독료의 급상승과 예산의 완만한 증가와 도서관의 수집능력을 초과하는 발행종수의 증가는 연속간행물의 구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학과 신설 및 교과과정의 변경에도 대비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는 더욱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구독취소 상황을 선행연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구독취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성이나 원문수집의 망라성 면에서 국내의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전체 대학도서관에 비해 현재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독료가 높은 연속간행물 구독의 대체수단으로 전문적인 원문제공서비스 이용과 전자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논문구입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안할 수 있었다.

### ABSTRACT

Serials subscription prices continue to escalate but university library budgets of those have not grown concurrently at the same rate. In fact, library budgets of serials subscription have decreased as a percentage of total library expenditure. Also titles with little or no use should be cancelled to make room for new serials that might be needed to reflect new research interests or changes in curriculum. This study includes overview of the serials cancellation and substitute solutions for subscriptions in university library. Taking into account costs and coverages, availability of cancelled serials through interlibrary loan is high in general. There is a potential for considerable savings by providing access to low-use titles, and that is a combination of commercial document delivery and pay per view based on e-business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to subscription in many cases.

키워드 : 구독취소, 상호대차, 원문제공서비스, 논문구입제, cancellation, ILL, DDS, PPV

\*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ejshin@sejong.ac.kr)

- 논문 접수일 : 2001년 2월 15일
- 게재 확정일 : 2001년 3월 6일

## 1 서 론

97년 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사태는 한국의 대학도서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대부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배에 달하는 환율의 상승과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단행된 예산 동결 및 감축으로 인해 연속간행물 구독을 30% 이상 줄인 대학도서관이 많았고 그 파장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진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학도서관에서는 복원된 예산을 구독을 취소했던 연속간행물의 구독재개에 지출하지 않고 시험 단계를 지나 본 제도에 오르기 시작한 전자저널 패키지를 구독하는데 소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한번 구독 취소된 연속간행물은 다시 재구독 되지 않고 그대로 구독이 중단된 예가 많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그리 많지 않다.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연속간행물 구독료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새로이 출판되는 연속간행물 종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의 구매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의 균형 있는 집행이라는 당위성 외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학과 신설 및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연속간행물 구독의 조정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영역 설정과 같이 연속간행물을 신규로 구독해야 할 요인이 자주 발생하므로 평상시 구독중인 연속간행물에 대한 평가방침을 철

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 있어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매우 시급한 일인 것이다.

전통적인 원문제공 방법인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연속간행물의 원문을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이 외에 전문적인 원문제공사의 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 DDS) 도입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연속간행물 게재 논문의 색인을 수록하고 있는 DB를 사서나 이용자가 탐색한 후 필요한 논문을 신청해 제공받는 방법이다. 전문적인 원문제공사는 우편, 팩스, 파일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며 이용료는 신용카드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결제하거나 또는 도서관의 위탁계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전자저널은 원문제공에 또 다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저널은 호(issue)를 통해 복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호는 다시 권(volume)으로 묶이게 되며 권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구독하게 하는 구독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자저널은 게재논문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연속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은 구독이 아닌 논문구입제(Pay Per View ; PPV)를 통해 논문 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 현재 출판사 특히 대형 출판사들은 이미 논문 이용에 따른 요금부과 정책을 상세히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출판사뿐 아니라 구독대행사도 논문을 이용

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원문수집이 많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의 원문제공서비스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과거와 같이 장서량 확보를 통한 도서관의 외적 성장에만 치중하기 보다 이용자의 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1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선정은 이용자의 요구(전공영역), 연속간행물의 지명도, 예산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구독했던 연속간행물을 변동 없이 재구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은 여러 가지 요인 특히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수서 정책에서 탈피하여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장서 개발에 역점을 둔 수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예산의 삭감은 핵심에서 벗어난 주변 영역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를 초래하였고,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구독취소 대상의 우선 순위가 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주제를 불문하고 구독료가 고가이면서 이용빈도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모두 재평가해 구독여부를 결정하는 보다 광범

위한 구독취소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구독취소 상황을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대차와 전문적인 원문제공사의 원문제공서비스 이용과 논문구입제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는 구독취소 분석을 바탕으로 세 대응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연속간행물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1.2 연구의 방법

중장기 장서개발정책에 의거해 구독취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구독취소 정책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독취소 상황은 전국 대학도서관의 구독취소 목록을 전부 수집해 분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구독취소 목록과 연속간행물 정보를 함께 수집해 분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담당 사서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로 최소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대학도서관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연속간행물 수서 담당사에게 이와 같은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독취소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다만 S대학도서관 1개관의 구독취소 상황을 분석해 국내의 대학도서관 취소상황 분석에 참조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업계의 동향 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수립할 수 있는 원문제공 정책에 관해 기술하였지만 원문신청 및 제공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례 분석으로까지 연구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S대학도서관은 2001년 3월부터 원문제공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경과해야 원문제공 사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구독취소의 대안인 원문제공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상호대차 이용 방안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중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n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s; KERIS)의 상호대차 추진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원문제공사 이용 방안에서는 해외에 있는 주요 원문제공사의 서비스 요금과 소요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이 자관의 실정에 맞는 원문제공사를 선택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논문구입제 도입 방안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국내에 판매를 개시한 몇몇 출판사의 서비스를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학술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을 총괄해 칭할 때는 '연속간행물'로 명기하였고 구독유형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쇄저널'과 '전자저널'로 구분해 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상호대차'는 도서관 간의 원문복사와 송부를 의미하며 대출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사기가 발달한 요즈음 분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속간행물을 관외로 대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복사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원문제공 방안의 하나인 'pay per view'는 '논문구입제'로 명기하였다. 직역하면 '이용건당 요금지불제' 또는 '이용시 요금지불제'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상호대차와 원문제공서비스에서도 위와 같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용어는 개개 논문을 판매하는 출판사의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불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두 용어 대신 정기구독을 통해 연속간행물을 입수하지 않고 사전평가를 통하여 논문을 선택적으로 구입한다는 의미에서 '논문구입제'로 표기하였다.

## 2 선행연구

구독취소의 동기와 현황은 국내와 외국의 대학도서관이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연구에 포함시켰

다. 구독취소의 대안 중 하나인 원문제공 서비스는 국내의 선행연구 고찰로 제한하였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원문제공사의 소요 시간 및 비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국내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수서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독취소와 더불어 상호대차를 통한 원문제공과 전문적인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합해 기술한 연구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21절에 기술하였다. 논문구입제는 최근 등장한 방안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은 생략했고 현재의 서비스 형태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3장에 기술하였다.

## 2.1 구독취소 및 원문제공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 사례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도서관은 \$446,000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구독취소를 결정하고 이용자의 원문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문수집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원문 신청 후 이용자는 2일 이내에 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Hayes(1995)는 보고한 바 있다. 구독취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그 다음 해 원문제공 통계를 보면 2,092건의 원문이 제공되었고 \$25,000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몇 년에 걸쳐 구독취소와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교수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연속간행물과 원문제공만으로 충분한 연속간행물과 목차서비스가 필요한 연속간행물

을 각각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경험적인 연구성과를 얻게 되었다. Chrzastowski와 Schmidt(1996)는 미중서부에 위치한 5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91년부터 92년까지 2년 동안의 연속간행물 취소실태를 조사해 분석하였다. 취소된 연속간행물 가운데 \$200 미만의 저가 연속간행물이 82%를 차지했고 자연과학, 의학, 기술 분야의 연속간행물이 전체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취소분석과 주문분석을 병행해 주제별 장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서개발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이용빈도가 낮으면서 구독료가 고가인 연속간행물을 선별해 구독취소를 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없으나 과연 연간 이용빈도가 얼마일 때 구독취소를 결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다. Rottmann(1991)은 연간 이용빈도가 6회 미만인 저이용 연속간행물은 구독보다 원문제공을 하는 편이 훨씬 경제성 면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신호에 비해 기간호의 경우 상호대차를 통해 훨씬 쉽게 원문수집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Gossen과 Irving(1995)은 저이용 연속간행물은 그렇지 않은 연속간행물에 비해 관리비가 12배 이상 소요된다고 분석하였고 연간 5회 이하의 이용빈도를 보인다면 구독보다 원문제공을 이용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연과학 분야의 원문제공은 타 주제분야보다 상

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10회 이상 이용되는 연속간행물은 원문제공보다 구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이용빈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이용빈도가 극히 낮은 연속간행물은 구독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다르며 한 번 이용하는 데 드는 단위비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앨버니 대학(Albany University) 도서관의 경우(Gossen and Irving 1995) 연속간행물 전체를 놓고 볼 때의 단위비용은 평균 \$8.20인데 비해 이용빈도가 매우 낮은 저이용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단위비용이 \$93.46인 것으로 집계되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위비용이 높은 연속간행물 즉, 구독료가 고가이면서 이용빈도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소장보다는 접근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적절한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연속간행물 구독과 상호대차를 서로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hmon(1991)과 Mellendorf(1993)는 상호대차에도 저작권료를 비롯한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독과 비교할 때는 비용이 덜 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데 주목하였다. Stein(1992)은 8개 대학 도서관 연속간행물의 구독목록을 상호 비교한 후 핵심과 비핵심 연속간행물을 변별해 내었고 상호대차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연속간행물을 중심으로 취소할 연속간행물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뉴욕주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저이용 연속간행물은 전문적인 원문제공서비스나 상호대차를 통한 원문제

공서비스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Gossen과 Irving(1995)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심지어 비소장 연속간행물의 원문 수집율이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원문 수집율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해 주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바람직한 연속간행물 구독정책 수립을 제안한 연구도 있는데 Metz(1992)는 이용빈도와 인용횟수, 구독료,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속간행물 구독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속간행물 구독취소 목록 대신 구독취소 불가 목록을 작성한 Hughes(1995)의 연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인용빈도로 연속간행물을 서열화해 구독이 요망되는 연속간행물 목록을 작성하였다. Haricombe와 Lusher(1996)는 원문제공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사서의 중개 없이 이용자가 직접 원문제공사를 통해 원문을 제공받게 한다는 것이다. Martin과 Kendrick(1994)도 도서관 사서의 중개 없이 이용자가 빠르게 원문을 검색하고 입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저이용 또는 무이용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에 관한 국내 사례 연구로는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재구독 평가 사례를 분석한 김혜양(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도서관에서는 이용빈도, 이용자평가, 인용분석, 색인DB에의 등재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구독하고 있는 연속간행물 전체를 평가한 바 있으며, 평가 결과 전체 유료구독 연속간행물 1,423종의

56.7%에 해당되는 연속간행물이 총 이용횟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이용에 가까운 이용빈도를 보인 연속간행물도 147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용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연속간행물의 서명을 적어 제출하도록 한 조사에서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연속간행물도 167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향후 신규 구독할 연속간행물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2.2 원문제공서비스 비교

이해영(1997)은 특수도서관의 상호대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KINITI(현 KISTI)를 통해 원문수집을 한 경우가 48%였고 외국 기관인 BLDSC(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를 이용한 경우가 61%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문을 제공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두 기관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비용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우편송부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KINITI 보다 장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BLDSC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정아(1998)는 최신의 정보기술을 도입한 원문제공서비스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S/W와 H/W의 설치비, 시스템의 융통성, 구비해야할 장비의 범위,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들었고 국내의 국회도서관, LG상남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심병규와 김금주(1998)는 94년부터 97년까지 포항공대에 원문을 신청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상호대차를 이용한 원문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신청건수는 해마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98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신청건수의 85%에 해당하는 원문이 제공되었고 나머지 15%는 결호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문이 제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포항공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원문신청도 많았는데 이 가운데 38%는 BLDSC를 통해 16%는 KINITI의 도움으로 원문이 제공되었다.

윤희운(1998)은 주제의 범위와 특성, 소요 시간, 요금과 지불방식, 신뢰성과 만족율을 기준으로 전문적인 원문제공사의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원문제공사에서 서비스하는 연속간행물의 종수와 유형, 주제의 망라성과 적합성, 원문의 최신성 및 소급성 등이 주제의 범위와 특성에 해당된다. 우편, 팩스,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등의 신청수단 및 전달방법에 따른 소요 시간도 반드시 서비스 평가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는 원문제공사에 따라 요금체제와 적용기준이 매우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위의 제 요소를 종합해 검토해야 하며 도서관의 인지도와 공급률의 측면에서 BLDSC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장혜란(2000)은 이용자가 신청한 원문 중 제공된 원문의 비율인 공급률과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편을 통한 원문제공에서는 BLDSC가 공급률이 높았고 소요시간은 CAS가 우수하였으며 비용은 BLDSC가 가장 저렴해 전체적으로 볼 때 BLDSC의 서비스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구독취소 분석과 원문제공 방안

#### 3.1 구독취소 분석

연속간행물의 발행종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연속간행물의 선정은 기타 다른 연속간행물의 구독을 중단시켜야 하는 결과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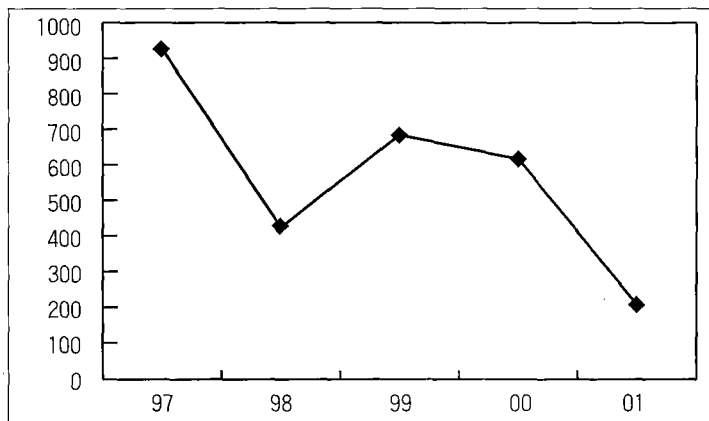
져온다. 특정 연속간행물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이른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연속간행물의 구독과 취소 결정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의 구독취소는 정기구독하던 인쇄저널을 재주문하지 않아 구독이 완전히 중단된 경우를 의미하며 구독 형태가 바뀐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바뀐 것은 구독 중단이 아니라 구독형태를 전환한 것이며 이용자의 접근성 면에서 볼 때 이전보다 오히려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S대학 연속간행물 담당 사서의 협조로 최근 5년간 유료로 구독한 외국 인쇄저널의 구독목록을 수집하였고

〈표 1〉 연도별 구독종수와 구독료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구독종수	927	424	684	617	208
구독료(단위:천원)	637,000원	403,000원	663,990원	663,533원	337,500원



〈그림 1〉 연도별 구독종수 추이



구독종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을 보면 인쇄저널의 구독종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외환위기가 닥친 98년에는 대대적인 구독취소를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8년의 구독종수와 97년의 구독종수를 비교하면 98년에 503종만큼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98년에 실제 구독취소 종수는 559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8년의 구독종수는 신규로 구독하기 시작한 연속간행물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98년에 구독취소한 559종의 인쇄저널 중 구독료 분석이 어려운 11종을 제외한 548종에 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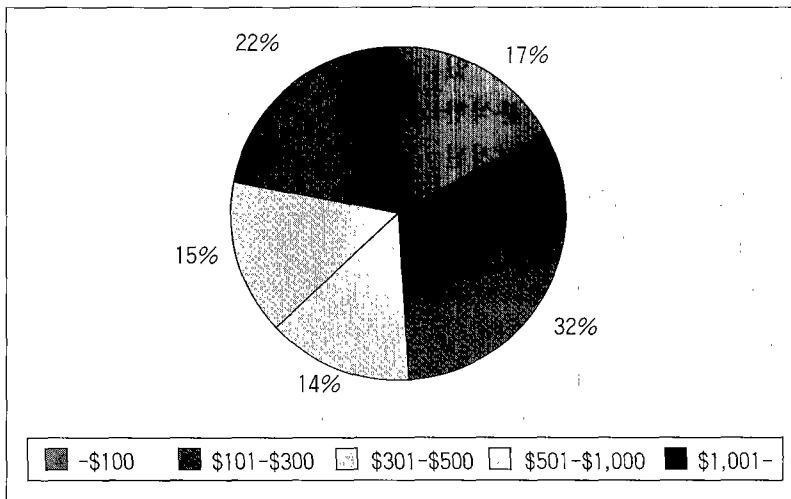
구독취소 연속간행물의 구독료를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독취소 연속간행물의 분포를 보면 \$101-\$300인 인쇄저널이 178종으로 전체의 33%여서 가장 많았고 \$500이 넘는 고가의 인쇄저널 202종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구독료가 높은 인쇄저널이 주로 구독취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1,000이 넘는 초고가의 인쇄저널도 전체의 22%인 121종이었다.

연속간행물의 간기는 연속간행물 구독 유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속간행물을 소장하는데는 연간 지불하는 구독료 외에 체크인, 제본, 서가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제본은 연속간행물의 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간기가 짧은 연속간행물은 연간 발행호가 많아 그렇지 않은

<표 2> 구독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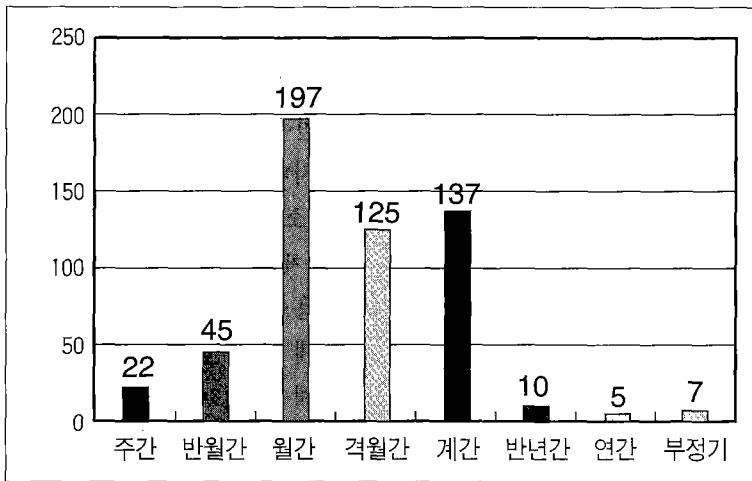
	-\$100	\$101-\$300	\$301-\$500	\$501-\$1,000	\$1,001-	합 계
종수(%)	92(17%)	178(32%)	76(14%)	81(15%)	121(22%)	548



<그림 2> 구독료 분포도

〈표 3〉 간기 분석 결과

	주간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부정기	합계
종수 (%)	22 (4%)	45 (8%)	197 (36%)	125 (23%)	137 (25%)	10 (2%)	5 (0.9%)	7 (1.2%)	548



〈그림 3〉 간기 분포도

연속간행물에 비해 자주 제본작업을 해야 하므로 예산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제본을 자주 하는 연속간행물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인쇄저널을 우선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구독취소 인쇄저널의 간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독취소가 결정된 연속간행물 중 월간지가 197종으로 전체의 36%인 것으로 나타났고 계간이 137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월간 이하인 연속간행물이 264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월 1회 이하로 간기가 짧은 연속간행물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간 이하로 기준을 낮추면 526종이어서 전체의 96%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취

소 연속간행물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구독취소 연속간행물 가운데 자연과학 분야 인쇄저널이 273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여기에 응용과학 분야 인쇄저널 109종까지 합하면 382종이어서 과학분야 저널이 구독취소 인쇄저널 전체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총류가 58종으로 전체 가운데 10.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8년 구독취소된 548종 가운데 다시 구독이 재개된 연속간행물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76종이어서 구독 재개와 완전 중단된 연속간행물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재개된 연

〈표 4〉 주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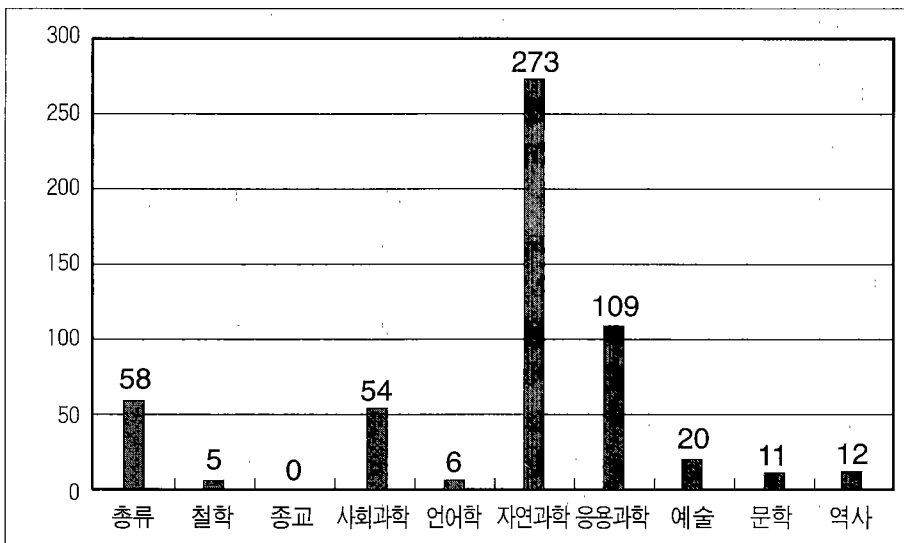
	종수(%)
총류	58(10.6%)
철학	5( 0.9%)
종교	0( 0.0%)
사회과학	54( 9.9%)
언어학	6( 1.1%)
자연과학	273(50.0%)
응용과학	109(20.0%)
예술	20( 3.6%)
문학	11( 2.0%)
역사	12( 2.2%)
합 계	548

속간행물 가운데 전자저널은 125종으로 전체의 45%였고, 인쇄저널은 151종으로 전체의 55%의 비율을 보였다.

### 3.2 원문제공 방안

컴퓨터와 원격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원문접근의 장애로 작용하던 거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자관과 타관의 OPAC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서지DB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원문수집 요구는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 국내 대학도서관의 원문수집 요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윤희운 1998b ; 심병규, 김금주 1998).

정보검색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연속간행물의 구독취소는 이용자의 원문수집 요구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출업무의 연장이나 참고업무



〈그림 4〉 주제 분포도

의 보충 정도로 원문제공서비스를 간과해서는 안되고 주변 업무에서 핵심 업무로 한층 격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원문수집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원문제공에 관한 대책 수립은 구독취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S대학교서관 뿐 아니라 국내대학교서관 모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각 대학교서관의 원문제공 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대학교서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3.2.1 상호대차

국내 대학교서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 협력해 필요한 원문을 복사해 주고받는 상호대차를 추진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KERIS에서 국내 학술연구기관 상호대차사업(Inter Library Loan)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98년 12월에 'KERIS 상호대차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99년 2월에는 KERIS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동을 시작하였다. 2001년 2월 현재 108개 대학교서관이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대학교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 7만종에 대해 원문제공이 가능한 상태이다. 2001년 상반기 중으로 상호대차시스템 S/W 수정작업도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대학교서관의 연속간행물 원문수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속간행물

의 소장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목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종합목록의 완성도에 따라 상호대차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KERIS의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은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다(첨단학술정보센터, 1999).

첫째, 연속간행물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분리해 DB화 하였다. 소장정보는 소장기관과 권호정보와 같은 소장사항에 관한 정보여서 잦은 갱신작업을 요하므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로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을 쉽게 추가하고 갱신할 수 있는 공동목록시스템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새로 작성한 연속간행물 레코드를 쉽게 종합목록DB에 업로드하고, 종합목록DB에 수록된 연속간행물 레코드는 다운로드 및 수정작업을 거쳐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요즈음은 상호대차시 원문을 우편, 팩스, 파일전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이용자의 선택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서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호대차를 신청할 때는 이용자에게 상세한 요금체계와 전송 방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원문제공을 전제로 한 KERIS의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검색화면으로 서지정보 외에 소장년도별 소장기관이 수록되어 있어 원문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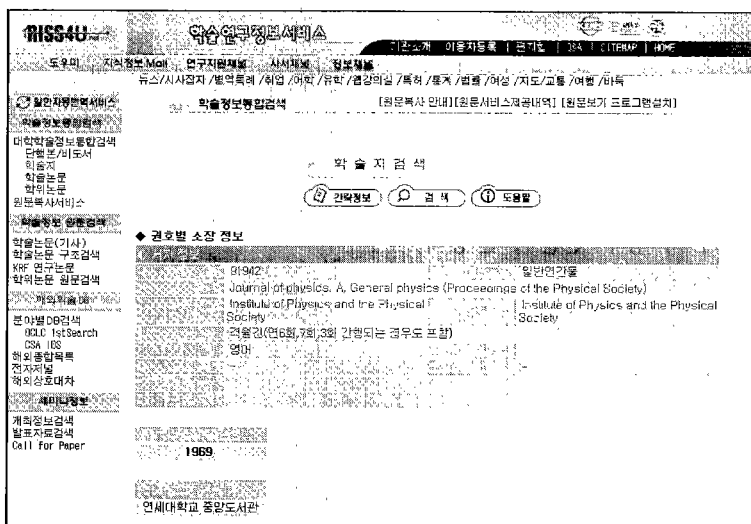
이처럼 국내 상호대차를 통한 원문제공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고 또한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몇 가지 있다.

첫째, 전자저널의 경우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각 대학도서관은 앞다투어 인쇄저널에서 전자저널로 구독형태를 전환하고 있는데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로의 원문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웹을 통해 서비스되는 전자저널의 속성상 단시간 내에 원문이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부분 계약서에 외부 이용 불허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체제가 유지된다면 인쇄저널의 경우에는 협정기관 간의 원문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저널은 대부분 원문제공이 불가능해 향후 전자저널의 보급이 확산되고 상대적으로 인쇄저널의 구독이 줄어들 경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원문제공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부담

시키고 있다. 각 대학마다 연속간행물 구독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은 취소한 연속간행물의 원문제공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을 세웠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속간행물 예산 가운데 핵심저널을 구독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문수집 지원금으로 전환한 사례(Hayes, 1995)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독취소 후 야기되는 이용자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데 대학도서관의 평가기준에 연속간행물 구독종수와 같은 외형적인 기준뿐 아니라 원문제공건수 및 원문수집 지원금과 같은 내용적인 기준을 포함시킨다면 대학도서관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KERIS의 종합목록 검색

### 3.2.2 원문제공사 이용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원문제공 기관은 BLDSC라 할 수 있다. BLDSC는 영국의 국립중앙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소속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86년 이래로 현재의 명칭을 쓰고 있다. BLDSC는 해마다 2,000여종의 연속간행물을 신규로 구독하며 2001년 2월 현재 구독 중인 연속간행물 종수도 47,000종에 달해 명실공히 전 주제분야를 포함하는 강력한 장서를 갖추고 있다. BLDSC는 출판사의 사정으로 폐간되었거나 차관의 구독정책에 따라 구독을 취소한 연속간행물도 170,000종 이상 소장하고 있다. 정기구독분과 기간호 소장분을 합하면 217,000종 이상의 규모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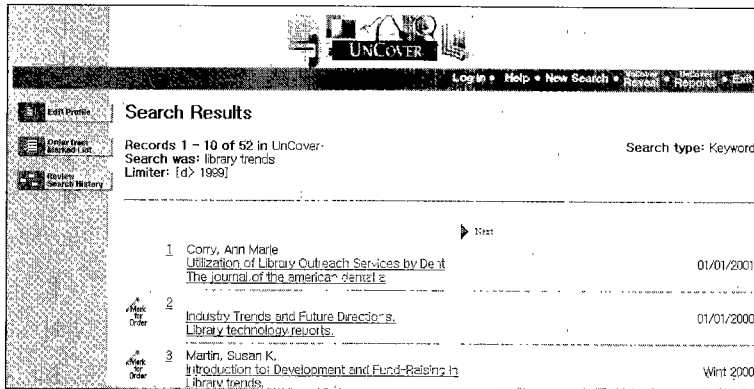
BLDSC는 97년 이후 웹을 통한 장서검색 및 원문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96년 이래로 우편, 팩스와 같은 전통적인 전달 방식 외에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원문을 제공하는 '초급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BLDSC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 외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구 KINITI)을 통해 원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문의 분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정액 요금체제를 따라야 한다.

BLDSC는 영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장서를 기반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중앙형 체제인데 반해, 미국의 OCLC는 잘 발달된 도서관정보망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도서관이 원문을 주고 받는 분산형 체제이다.

OCLC는 60년대 중반 오하이오주 도서관정보망으로 발족한 이후 2001년 현재 4,500만건 이상의 서지정보를 WorldCat이란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서지정보망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 40개관이 이미 OCLC와 협력도서관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이들은 전 세계 50여개국의 도서관에 소장된 방대한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다른 협력도서관에 원문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신속하게 원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문제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원문제공사인 Uncover는 93년 CARL System사와 Blackwell사가 합병된 이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5년에는 Knight-Ridder Information사로 소속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1년 현재 80년대 이후의 연속간행물 20,000종에 대해 원문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Uncover의 목차DB는 웹을 통해 무료로 검색해 볼 수 있고 원문마다 요금이 기재되어 있어 편리하며 팩스나 웹을 통해 신청한 후 24시간 내에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원문제공서비스 외에 국내 대학도서관은 자관에서 구독 중인 연속간행물의 목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Uncover를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원문제공업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Swets & Zeitlinger사의 SwetDoc, ESS사의 EBSCODoc, UMI사의 Infostore 등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서비스 체제가 다른 여러 개의 원



〈그림 6〉 Uncover의 원문제공서비스

문제공사와 접촉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에는 KISTI나 교보문고에 의뢰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사서의 업무량을 경감시킬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와 주요 원문제공사의 웹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원문제공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 3.2.3 논문구입제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가장 빨리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자관에서 인쇄저널로 혹은 전자저널로 구독하고 있을 때이다. 이와 같이 정기구독을 통해 연속간행물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전자저널 배포의 한가지 형태로 원하는 논문을

다운로드 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논문구입제'도 논문을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논문구입제는 연속간행물의 연간구독료 대신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비핵심 연속간행물의 구독 대신 이러한 논문구입제를 수용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논문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비핵심 연속간행물이 고가이면서 이용빈도가 낮을 때는 더욱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연속간행물을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을 경우라 하더

〈표 5〉 주요 원문제공서비스 현황

기관명/서비스명	전송방식	요 금	처리시간	처리시간
BLDSC/Standard BLDSC/Urgent Action	우편	\$11.5	24-48시간	비소장은 요금추가
	팩스	\$31.5	24시간	
ISI/Document Solution	우편	\$11.75 + 저작권료	24시간	
	팩스	\$20.00 + 저작권료		
OCLC/FirstSearch	우편	\$3.75		
Uncover/DDS	팩스	\$20.0 - \$36.5	24시간	팩스료 \$7.0포함

라도 이용자는 더 이상 도서관 수서 담당자에게 장서개발 정책을 바꿀 것을 호소한다거나 학과별 예산배분을 거론하며 신규로 구독해줄 것을 촉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논문구입제는 전자저널 체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저널 이용의 장점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어 인쇄저널 이용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이 있다. 서가에서 직접 연속간행물을 찾아 복사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인쇄저널을 이용할 때 보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이용자가 인쇄저널을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서가에 잘못 꽂혀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수 실패도 막을 수 있다. 사이트 인증 방식으로 전자저널을 구독할 경우에는 관내 뿐 아니라 대학캠퍼스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운로드한 논문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전자메일로도 전송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다. 전자저널이 발행될 때마다 검색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원하는 질의어나 관심있는 저널명을 프로파일에 등록해 두고 원하는 논문이 발행될 때마다 초록과 서지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는 자동 통보서비스(alert service)를 활용할 수도 있다.

향후 논문구입제가 확산되면 개인회원이건 단체회원이건 간에 다수의 구독자가 정기구독 대신 논문구입제를 택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해서인지 아직까지 논문구입제를 실시하는 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 McKay(2000)에 따르면 2000년 현재 Blackwell Science를 비롯한 8개 출판사는 전자저널 600여종에 한해 논문구입제를 실시하고 있다. 논문 1건을 다운로드 할 때 \$12.00에서 \$20.00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고 출판사에 따라서는 논문의 분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 최고 \$40.00까지 요금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을 동시에 발행하건 또는 정기구독과 논문구입제 둘 다를 동시에 시행하건 간에 특정 저널이 필요한 대학도서관이나 개인 구독자는 정기구독을 택할 것이다. 연속간행물 이용빈도가 낮은 대학도서관이나 개인 구독자는 논문구입제를 이용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 감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문제된다면 출판사는 전자저널의 구독료나 논문구입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얼마든지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논문구입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McKay, 2000). 그러므로 논문구입제는 점차 넓게 확산될 전망이고 몇몇 출판사는 EBSCO와 같은 구독대행사에 위탁하여 논문구입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그림 7> 참조).

대학도서관에서는 논문구입제 이용 현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게는 이용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연속간행물을



차기 구독신청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는 연속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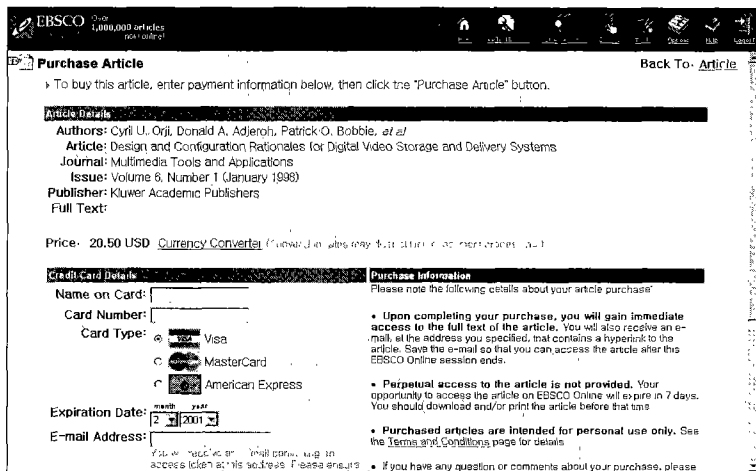
### 3.3 논의 및 제언

별다른 지원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대학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연속간행물을 구독해야 하므로 연간 계속되는 구독료 상승은 구독 중이던 연속간행물을 일부 취소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학문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새롭게 발행되는 연속간행물도 많아 대학도서관은 구독취소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도 많다. 그러나 구독취소는 업무의 종료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원문을 제공하는 원문제공서비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구독료 외에 연속간행물 소장에 드는 비

용과 소장공간의 부족은 연속간행물의 소장 대신 원문제공서비스에 관심을 쏟리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격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DB의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쉬워졌고 서지정보 검색 결과에 대해 원문을 입수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원문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는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연속간행물 원문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KERIS를 통하거나 아니면 타관에 원문제공을 직접 의뢰하는 상호대차 방법과 BLDSC와 같이 전문적인 원문제공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과 전자저널 출판사나 구독대행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문구입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표 6>을 보면 상호대차 방법인 첫 번째 방법은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연속간행물 원문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 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원활한 업무처



<그림 7> EBSCO의 논문구입제

〈표 6〉 원문제공방법 상호 비교

		ILL	DDS(fax)	PPV
경제성	신속성	△	○	◎
	이용료	○	△	△
망리성	연속간행물 중수	◎	○	△
편의성	정확성	△	○	◎
	편리성	△	○	◎
	융통성	△	○	◎
관리측면	이용량 분석	○	○	○

(△:양호, ○:우수, ◎:아주 우수)

리가 불가능하고 원문을 전달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원문제공 기관을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첫 번째의 상호대차 방법보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등장한 세 번째의 논문구입제 방법은 이용자가 서지정보는 물론 초록까지 훑어본 후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타 방법에 비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웹 상에서 다운로드를 통해 원문을 수집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다만 수익 감소를 염려한 나머지 논문구입제 실시를 유예한 출판사도 다수 있고 전자저널로의 전환은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인쇄저널만을 고수하는 출판사도 있어 이 방법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학도서관에 있어 원문제공서비스는 교수나 학생 이용자의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후원자 역할을 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사서나 대학도서관 경영자는 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의 상호대차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KERIS와 대학도서관의 공동 노력으로 상호대차는 초기 단계를 지나 점차 발전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이나 전체 상호대차건수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청서 발송, 기록, 회계에 필요한 S/W도 보완 중에 있어 이의 완성 이후 진행속도가 다소 빨라질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상호대차가 더디게 진행된 것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데 원인이 있었다기 보다는 사서의 인식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지금까지 상호대차를 소수 이용자의 원문수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사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자는 자관 장서에 한하지 않고 협력도서관의 장서까지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이미 '포괄적인 장서 이용'으로 폭을 넓혔다는 사실을 사서는 하루 속히 깨

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원문제공서비스의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구독취소를 실시해 얻게 된 예산과 프로젝트 간접비 등을 이용자의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할당해 원문수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독취소로 생긴 예산과 프로젝트 간접비는 이용자 및 연구자에게 되돌려져 연구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S대학도서관에서는 타관을 통해 원문수집을 할 경우 교수이용자에 한해 연간 일정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셋째, 해외 원문제공서비스와 논문구입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국가전자저널 컨소시엄(KESLI)은 출판사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전자저널의 구독료를 대폭 인하시킨 바 있는데 향후 판매논문의 단가도 낮추는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 4 결 론

해마다 상승하는 구독료와 한정된 예산은 구독취소를 초래하고 있어 장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구독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외국 대학도서관의 구독취소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구독취소 사례를 수집해 구독료, 간기, 주제, 구독재

개 여부 등 구독취소 상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도서관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연속간행물을 더욱 엄격히 평가해야 하며 구독취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별다른 평가 없이 구독을 계속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용빈도 분석을 통한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인쇄저널의 이용빈도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JCR의 영향지수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 같은 전문가집단을 연속간행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교수 자신이 이용자 입장에서 새로 추가하기를 희망하는 연속간행물을 먼저 제시하게 한 후 구독중인 연속간행물을 평가하게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구독을 취소할 연속간행물을 더 많이 찾아낸다는 선행연구 결과 활용도 바람직하다.

구독취소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대차, 전문적인 원문제공서비스, 논문구입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원문제공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위의 세 방안 중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문수집의 망라성 면에서는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신속성, 정확성, 융통성 면에서는 논문구입제를 이용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적인 원문제공사를 이용할 때는 상호대차와 논문구입제의 중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이용자는 서지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고 타관의 소장정보도 웹을 통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원문수집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대학도서관의 원문수집 노력은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현재 KERIS 웹에 상호대차 협력기관으로 등재된 대학도서관 수는 108개관에 불과해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서관 416개관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상호대차를 통한 원문수집에 드는 비용은 해외 원문제공사나 논문구입제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의 30%도 되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국내 대학도서관은 상호대차제의 정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가 미진하면 해외 원문제공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원문제공을 의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와 관련지어 국내 대학도서관은 연속간행물의 장서개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호대차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대학도서관은 보다 차별적인 장서구성을 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우수하고 균형잡힌 장서구성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특징이 없는 장서구성으로는 상호대차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연속간행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원문을 제공할 수 없다. 상호대차와 더불어 공동수서와 같은 도서관 상호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서관협력을 추진하는 것 외에 대학도서관은 연속간행물 구독의 보조 수단으로 전문적인 원문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논문구입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연속간행물은 '소장 대 접근'의 접점인 손익분기점을 파악해 구독 대신 원문수집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용자는 도서관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문제공사로부터 또는 출판사로부터 직접 원문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자저널의 자동 통보서비스에 등록해 놓을 경우 이용자는 적합한 논문이 발행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전자메일을 통해 통보 받으며 그 자리에서 즉시 원문을 신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는 도서관 고유 업무인 신착자료 안내와 원문제공이 전자상거래(e-business)를 앞세운 출판사로 점점 이양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로서 사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 서비스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문구입제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임에는 틀림없으며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만이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정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혜양. 1998. 구독잡지 중단과 협동 수서. 『한국의학도서관』, 25(1): 31-47.
- 박정아. 1998. 문헌제공서비스에서의 정보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5(1): 36-56.
- 서앵주. 1999. 웹상의 온라인 저널 구독 및 관리. 『디지털도서관』, 15: 52-62.
- 심병규, 김금주. 1998.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행태 분석. 『도서관문화』, 39(6): 4-19.
- 윤희윤. 1998a. 국내외 상업적 문헌제공시스템의 현황파악과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5(2): 7-28.
- 윤희윤. 1998b. 대학도서관 문헌제공봉사의 현황분석과 강화방안. 『도서관학논집』, 29: 27-37.
- 이경호. 1998. 전자원문제공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도서관학논집』, 17(1): 89-101.
- 이해영. 1997. 국내 특수도서관에서의 원문제공과 상호대차 서비스 및 정보기술의 활용 현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3): 53-73.
- 장혜란. 2000.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 가능한 상업적 문헌전달서비스의 성능 평가. 『정보관리학회지』, 17(1): 89-101.
- 첨단학술정보센터. 1999. 지식기반사회 초기 정착을 위한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 : 동센터.
- 한상완. 2000. 디지털시대의 정보조사제공학. 서울 : 구미무역.
- Bradbury, D. and G. P. Cornish. 1992. Worldwide view of information: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and international interlibrary loan, *RQ*, 32(4): 185-192.
- Chrzastowski, T. E. 1998. Making choices: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collection assessment and evaluation: a report of the symposium,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22(4): 453-460.
- Chrzastowski, T. E. 1997. The Serials cancellation crisis : national trends in academic library serial collections,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 Theory*, 21(4): 431-443.
- Chrzastowski, T. E. and K. A. Schmidt. 1996. Collections at risk : revisiting serial cancellations in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7(7): 351-364.
- Gossen, E. A. and S. Irving. 1995. Ownership versus access and low-use periodical titles, *Library Resources Technical Service*, 39(1): 43-52.
- Kane, L. T. 1997. Access vs. Ownership : do we have to make a choic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8(1): 59-67.
- Kingma, B. R. 1998. The Economics of Access versus Ownership: The Costs

- and benefits of access to scholarly articles via interlibrary loan and journal subscription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26(1/2): 145-157.
- Kurosman, K. and B. A. Durniak. 1994. Document delivery : a comparison of commercial document suppliers and interlibrary loan servi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5(3): 129-39.
- Haricombe, L. J. and T. J. Lusher. 1996. You want it when? Document delivery in the 1990s, *Continuity & Transformation*, 357-364
- Hayes, J. R. 1995. The internet's first victim? *Forbes*, 156: 200-201.
- Hughes, J. 1997. Can document delivery compensate for reduced serials holdings? A Life sciences library perspectiv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8(9): 421-431.
- Hughes, J. 1995. Use of faculty publication lists and ISI citation data to identify a core list of journals with local importance, *Library Acquisitions : Practice & Theory*, 19(4): 403-413.
- Lahmon, J. A. 1991. Using interlibrary loan data in collection development, *OCLC Micro*, Oct: 19-22.
- Martin, H. S. and C. L. Kendrick. 1994. A User-centered view of document delivery and interlibrary loan, *Library Administration & Management*, 8(3): 223-227.
- McKay, S. C. 2000. E-business for e-journals : article pay per view, *Serials Librarian*, 38(1/2): 101-105.
- Metz, P. 1992. Making the most of a bad situation : a successful journal cancellation project, *Library Issues*, 12: 1-2.
- Mellendorf, S. A. 1993. A Practical method for using interlibrary loan data to assist librarians with collection development, *OCLC Systems and Services*, 9: 45-48.
- Rottmann, F. K. 1991. To buy or to borrow : studies of the impact of interlibrary loan on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academic library, *Journal of Interlibrary Loan & Information Supply*, 1(3): 18.
- Stein, L. L. 1992. What to keep and what to cut? using the internets as an objective tool to identify 'core' periodical titles in an specialized subject collection,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10(1): 3-14.
- Shemberg, M. and Grossman, C. 1999. Electronic journals in academic libraries : a comparison of ARL and non-ARL libraries, *Library Hi Tech*, 17(1): 26-45.